

□ 인터뷰-웃음을 만드는 사람, 표정 연구가 정연아

“웃는 얼굴로 성공 이미지를 가꾸세요”



“인간에게만 주어진 축복인 미소는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해준다. 나는 성공을 꿈꾸는 모든 이에게 멋지게 미소짓는 법을 연구해 보라고 적극 권유하고 싶다. 미소는 그 어떤 것보다 실제적이고 확실한 무기다”

스마일 아티스트인 정연아의 책, ‘성공하는 사람에게 표정이 있다’ (명진 출판사)에 실린 한 구절이다. 작년 한해 이 책으로 이미지 메이킹이란 신조어를 만들어내 바람을 일으킨 여성. 그녀를 만나기 위해 홍대 근처 오피스텔로 향했다. ‘푹푹!’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니 넓은 창으로 들어온 한낮의 햇살이 방안 가득했다. “방이 참 환하고 예쁘네요” 파란 원탁에 앉으며 말하자 그녀는 특유의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저 미소. 기자가 그녀를 인터뷰하게 된 것은 저 환한 미소 때문이다. 그녀가 저 미소를 만들기 위해 쏟았을 노력과 그녀만의 웃음의 철학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의 얼굴을 깨워 미소짓게 한 힘을 묻기 위해서였다.

“결혼 후, 집안 일만 했죠. 그러곤 어느 편가 생기없이 무표정한 제 얼굴을 발견했어요. 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고, 사회에 나와서야 밝게 웃는 표정이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 지 깨달았죠”

그녀가 전업 주부의 앞치마를 벗고 사회에 뛰어 나온 지 8년. 처음에 메이크업 학원을 다녔지만 일이 잘 풀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 원인을 평소 입꼬리가 처져 차가워 보이는 자신의 인상에서 찾았고 그 후 많은 사람들의 표정을 연구하며 이미지 메이킹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다.

“성공한 사람들에게서 내가 발견한 공통점은 한결같이 성공을 부르는 표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역시 그녀가 책에서 고백한 말이다. 그녀는 우선 자신의 얼굴을 펴고 입꼬리 올리는 연습을 했다.

“웃는 얼굴은 우선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죠. 생명이 없는 무표정한 얼굴은 상대방에게 좋지 못한 인상을 남기거든요. 또 웃으면 젊어 보이고 운이 강해져요. 생각해 보세요. 밝고 생기 있는 얼굴을 가진 사람을 누가 마다하겠어요. 또 웃으면 여유를 갖게 되고 여유를 가지면 자신에게 자신감이 생기니 성공하지 않을 수 없어요” 웃음의 힘에 대해 확신에 찬 눈빛으로 말하는 그녀는 “그뿐 아니라 파안대소하면 에너지가 발산해서 살이 빠질 뿐 아니라 민병의 근원인 스트레스가 사라지니 건강해지죠”라고 덧붙인다.

그녀 역시 최근 IMF의 타격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요즘처럼 격정스럽고 고개가 푹푹 숙여 질수록 입꼬리를 올린다는 그녀. “겉모습이 긍정적이면 마음도 긍정으로 돌아서게 되요. 저도 작년에 비해 어려운 점이 많아 울상을 짓고도 싶지만 그때마다 입꼬리 올리고 웃는 걸 기억해내죠. 요즘은 제가 직접 경험하면서 웃는 표정의 효과를 보고 있는 셈이에요” 라고 말한다.

이제 그녀가 원하는 웃는 표정을 만들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들어보자.

“우선 무표정한 얼굴은 입주위 근육이 굳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육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하루 네다섯 번씩 입모양을 크게 해서 ‘하하하’, ‘호호호’, ‘후후후’ 하고 웃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입

꼬리가 처진 분들은 생각날 때마다 거울을 보며 검지손가락으로 입꼬리를 올려보세요.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미소를 스스로 디자인하기 위해서 엘범을 관찰하며 가장 아름다운 미소의 크기를 찾거나 손거울을 보고 여러 표정을 지어보는 것도 좋아요. 아마 자신도 모르게, 환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있는 모습을 발견할 거예요” 그녀 자신도 그 방법을 통해 지금의 살짝 올라간 입꼬리를 갖게 되었고 41살이란 나이에 비해 놀라울 만한 젊고 탄력 있는 얼굴을 만들었다고.

한참 얘기를 하던 중 전화가 걸려왔다. 얼마전 강의를 했던 대학교 여학생회 회장의 안부전이었다. “가끔 대학교에서 면접대비 이미지 메이킹이나 사회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외적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을 강의해요. 대학생들에게 3학년짜리 수업하나 만큼이나 멋지게 웃을 줄 아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죠”

이런 안부전화 말고도 책을 읽고 웃는 연습을 해 짜증스럽던 생활이 새롭게 변했다는 얘기가 담긴 편지들도 적지 않다. 험악한 죄인을 다루는 젊은 교도소 의경이 책을 읽고 보내온 편지도 있고 주부들의 편지도 많다.

예전보다 많이 여유가 생긴 요즘, 다음 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요즘 일이 많이 줄었지만 다음 책을 위해 공부하기 위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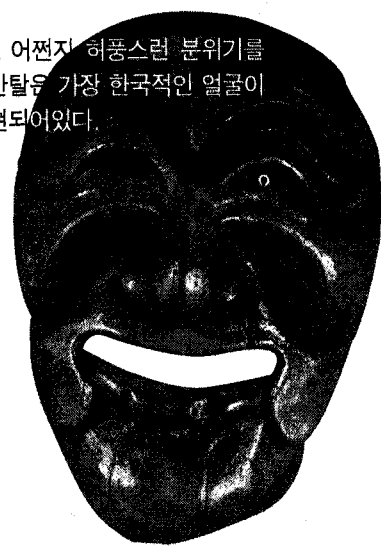
어려운 상황에서도 활짝 핀 표정을 잊지 않고 새롭게 도전하려는 그녀의 모습에서 미소의 여신이 그녀를 지켜줄 거라는 생각을 해본다.

〈정수운 기자〉

□ 한국의 미소 - 탈

양반탈

넉넉하면서도 어쩔지 허풍스런 분위기를 갖고있는 양반탈은 가장 한국적인 얼굴이 호탕하게 표현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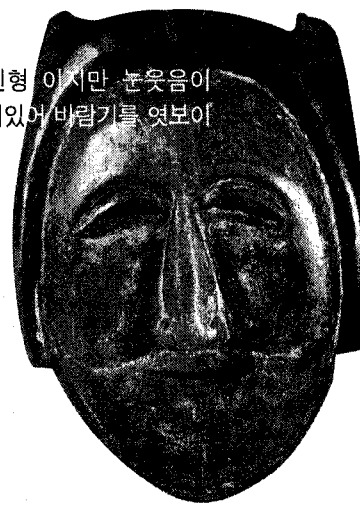
백정탈

차츰 줄어 눈썹과 주름살이 있는 심각한 표정의 백정탈은 누를찍하지 않고 살생의 고귀함을 감내하는 모습을 강하게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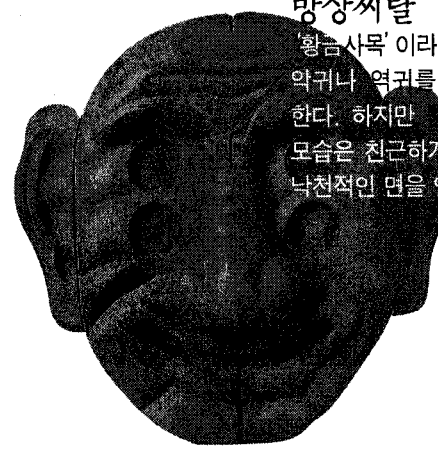
부네탈

계란형의 미인형이지만 눈웃음이 항상 가득 배어있어 바깥기를 영보이게 한다.



방상씨탈

‘황금사육’이라 불리우며 축귀, 즉 악귀나 역귀를 몰아내는 구실을 한다. 하지만 도와는 달리 웃는 모습은 친근하게 느껴져 선조들의 낙천적인 면을 엿볼 수 있다.



□ 웃음, 역사의 흐름 속으로

웃음이 서말이면 역사가 바뀐다

웃음은 인간의 본능이자 특권이다. 그만큼 인간은 오랜 역사속에서 수없이 웃어왔고 또 웃고 있다. 또한 웃음에 관한 많은 이야기 거리도 남겨 왔다.

웃음도 웃음 나름이듯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무의미한 웃음에 대해서는 ‘소의호’를 빼놓을 수 없다. ‘소의호’는 옛적 중국 남방에 자생하던 버섯이라고 한다. 이 버섯을 먹은 사람은 미친 사람처럼 대궐에 갈 구름이 웃었다고 한다. 명시인 이태백도 이 버섯을 경계하는 시를 지었다고 하니 이 버섯이 당시에도 꽤나 유명했던 모양이다.

조소하는 웃음도 있다. 초한지의 명장 한신은 어릴적부터 동네 사람들의 웃음거리였다고 한다. 그가 시장에 나타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며 웃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조소를 이겨내고 명장이 되었다. 반면 삼국지의 조주라는 사람은 제갈량과의 첫대면에서 긴장한 나머지 말주변이 서툴렀던 모양이다. 덕분에 주위 신하들의 웃음거리가 되었고 이후 벼슬을 하면서도 평생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고 한다.

‘박장대소’라고 하는, 미친듯 웃는 웃음에 대해선 우리나라의 코미디언 구봉서·배삼룡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이다. 6.25 이후 삶이 힘들어지고 웃음이 사라진 시대, 그들은 악극이라는 패제를 통한 웃음으로 국민들에게 미친듯 웃어볼 수 있는 여유를 주었다. 또 중국 전국시대 제나라의 신하 순우곤은 어쩌다 웃으면 갓끈이 끊어질 정도로 크게 웃었다고 한다. 이를 본 왕과 주위 신하들도 같이 웃었고 웃는 가운데 정치를 잘할 수 있었다고 한다.

아름다운 미소라고 한다면 통일 신라시대 넓은 기와 유물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양각된 여인의 미소는 당시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정서를 집약하기에 충분하다. 고구려 화공 담장이 그랬다고 하는 일본 호류사 금당벽화에 보면 살며시 웃는 미륵의 미소가 그려져 있는데 이 역시 당대 최고의 아름다운 미소이다. 이외에도 어디에도 지지 않을 미소가 있다면 60~70년대 세계 남성들의 혼을 빼놓았던 마릴린 몬로의 유혹적인 미소도 있을 것이다.

세상을 달관하거나 자신감에 도취하여 웃는 호탕한 웃음에 대하여도 이야기 거리가 있다. 거란의 백만 대군을 청천강에서 수장시킨 감감천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국정 회의에서의 큰웃을 하나로 나라를 구했다. 당시 회의에서 모든 대신은 거란의 대

군에 겁이 질려 항복론으로 기울어졌고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감감천은 호탕한 웃음 한번으로 회의의 결론을 뒤집었다고 한다.

웃음을 전략적으로 이용했던 이도 분명 있을 것이다. 삼국지의 유비는 전쟁에 져도 웃을 만큼 푹하면 웃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스스로를 덕으로 무장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라는 것이 후세의 평가이다. 그리고 중국 당나라의 이의부라는 사람은 언제나 화평한 듯 웃는 사람이었다고 하나 그 마음속으로는 언제나 음흉한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은 그를 평할 때 웃음속에 칼이 들어있다고 했다.

계속 웃는 이야기만 하였는데 반면 웃지 않았던 사람도 있을 터이다. 고려시대 예종때 재상 최충사의 가족 및 주위 사람들은 그가 평생 웃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하니 참 신기할 노릇이다. 또 몇년전 인기드라마 ‘모래시계’의 재희라는 인물은 극중 한번도 웃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니 신기하다 못해 불쌍할 따름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어떤 형태로든 웃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웃음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송준우 기자〉



▲ 남녀노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웃음은 역사의 한페 이지를 장식할 정도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있다

우정원 입사자 모집안내

경희대학교 학생 여러분께! ... 우정원의 새 공간이 열렸습니다

입춘전절에 면학에 전념하는 학생 여러분의 권승을 기원합니다. 급변 경희대학교 우정원 기숙사 준공이 가까워짐에 따라 그동안 학교 통학거리 등으로 학생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해 드리게 되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원거리 통학으로 통학시간 및 학숙생활 불편했던 사항을 대학내 우정원 개관으로 기숙사 생활이 보다 편리하게 되었고, 대학내 편의시설 완비 등으로 면학에 전념할 수 있는 건전하고, 최고·최적의 기숙환경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생 여러분” 여러분의 입주할 기숙사 우정원생을 아래와 같이 선발하오니 많은 관심바랍니다.

1.기숙사 현황

구 분	수 용 인 원			비 고
	남	여	계	
대학생 및 대학원생	908	506	1,414	1,2,3인실

2.복지 및 시설현황

구 분	내 용	비 고
기숙사전용	전용전화회선, 인터넷전화회선, 전용화장실, 전용샤워, 개인전용침대, 고급책걸상, 연중사용가능	지상2층~5층
편의시설	빨래방, 전문유통구내식당, 이·미용실, 서점, 대형편의시설, 오락시설 등	지상1층편의시설, 지하1층 식당

3.입사비(1인기준)

구 분	전세금액(년간)	월세금액(년간)	월세금액(학기당)
3인실	600만원	보증금 100만원 월세 110만원	보증금 100만원 월세 5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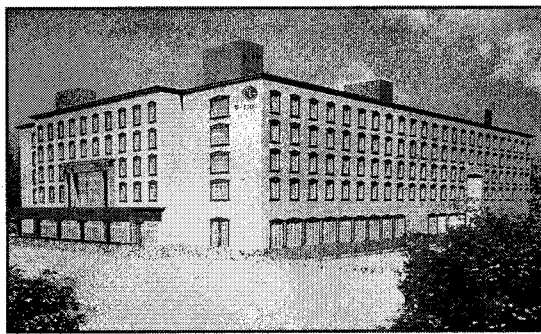
※ 전기, 수도 난방비 포함 (단, 전화사용료 및 식대는 개인부담)

4.입사신청기간 및 방법

- 1) 신청기간 : '98. 6. 1~6. 10 (10일간)
- 2) 신청장소 : LG건설 분양사무실 및 각 대학 학과 사무실
- 3) 신청서류 : 입사신청서
- 4) 신청서배부 : LG건설 분양사무소 및 각 대학 학과 사무실
- 5) 입사자 선정 통보 : 입사자 확정후 개별 통보

5. 입사시기

'98년 9월부터



우정원 객실(3인실)평면도

